

광양시, 3년 연속 인구 증가세... “청년 정책 성과 입증”

청년 유입 64%...도 최연소 도시

일자리·주거·복지 3각 체제 구축

광양시가 3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 역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적령기(27-34세) 청년 유입이 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 인구 비율 34.4%를 기록,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매

김했다.

광양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꼽고 있다.

특히 철강·이차전지 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아카데미,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산 대비 9억3천만원이 증액된 2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일자리·주거·복지 등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

진 중이다.

분야별로는 ▲청년 행정인턴 운영,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등 참여·권리 분야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분야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 분야 ▲문화복지카드, 미혼남녀 만남 행사 등 복지·문화 분야 ▲청년 농업인대학, 장학금 지원 등 교육 분야 정책이 포함된다.

광양시는 국회사무처 산하 (사)청년과미래 주관 ‘2024 청년친화현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고, 청년친화도

시 지정을 목표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청년복합공간 조성,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교류와 지역 정착환경도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운영,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했으며, 광양학사 운영과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주거안정망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결혼축하금, 문화복지카드, 청년꿈터 프로그램 등 청년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앱 ‘MY광양’을 통한 통합 신청 서비스,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으로 청년 정책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아우르는 3각 체제를 구축해 젊은이들이 광양에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모든 청년이 꿈꾸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 원도심 광장, 문화콘텐츠 공간 대변신

이틀간 5만명...상권 매출 최대 5배 ↑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비전 ‘확인’

순천시 원도심 문화콘텐츠 축제에 5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축제는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츠(Wants)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있슈(Issue)’ 등을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사진〉

시민로, 남문터광장, 옥천원을 거점으로 펼쳐진 이번 원도심 문화콘텐츠 축제는 단순 행사만이 아닌 공간의 변화·활용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뤘다.

‘주말의 광장’ 행사는 ‘도심 해방로드’를 콘셉트로, 차 중심의 시민로에 잔디를 깔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해방구 같은 도심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원츠(WANTS) 순천’의 주 무대인 남문터광장은 막혀있던 공간을 개방해 자연 바람길로 만들고, 방치된 공원은 녹색카페로, 오래된 분수터는 어린이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해 죽은 공간을 생기 있게 바뀌었다.

아외 녹색카페존은 푸드트럭과 원도심 상가 배달존으로 운영해 가족단위 관람객이 가장 애용하는 공간이 됐다.

특히 화색빛 남문터광장은 푸른 야외극장으로 변신해 ‘태마록’, ‘디즈니 모아나’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어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비전을 보여줬다.

축제 기간 중앙시장과 문화의거리, 시민로 일대 상권은 평소보다 3배 가량 매출이 올랐으며, 일부 점포는 5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준비한 재료가 낮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며 “이번 축제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벨리곰 편 위킹과 벨리곰 댄스파티, 신비아파

트 싱어롱, 디즈니 겨울왕국과 모아나 싱어롱(클래식) 등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캐릭터와 가까이 호흡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콘텐츠로 꼽혔다.

노란구 순천시장은 “앞으로 원도심 일대 콘텐츠 기업 20여 곳이 자리 잡게 되면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로 먹고사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 창평면 지사協, 무더위 냉방용품 지원

담양군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가정 7곳에 냉방 용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여름맞이 특화사업의 하나로, 100만원 상당의 서늘레이터 선풍기를 각 가구에 전달했다. 〈사진〉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읍민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며 안부를 확인하고, 여름철 위기 예방을 위한 안내도 병행했다.

이종철 공공위원장과 송희용 민간위원장은



“올해도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았다”며 “어르신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후원 식당과 연계한 밑반찬 제공, 세탁방 운영,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국 태권도인 구례로~

19일까지 실내체육관서 대회 개최

구례군은 12일 “오는 19일까지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격파·품새·겨루기 3개 종목에서 초등부터 일반부까지 3천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12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태권도 시범 공연단이 화려한 기술과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구례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구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춰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전지훈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일과 쉼을 동시에”...고흥 ‘블루워케이션’ 운영

고흥군은 12일 “이달부터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형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은 마리안느마켓 나눔연수원(사진)을 거점으로 참가자를 맞이한다. 기업, 공공기관, 1인 사업자, 디지털 노마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에 따라 2박3일 기준 20만원, 3박4일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워케이션 패스 제공(식사&카페 이용권, 커피농장 체험, 숲 치유 프로그램 등) ▲쏘카(SOCAR) 쿠폰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웰컴키트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정한 공기와 바다, 숲이 어우러진 고흥은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워케이션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블루워케이션을 통해 고흥의 매력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장성 ‘필암서원 선비축제’ 내일 열린다

필묵 체험·서책 만들기 등 다채

장성군이 선비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연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과 장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광주문화나루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하서와 함께 걷다-필암서원 선비축제’가 오는 14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앞선 5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하서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선비문화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관심을 모은다.

축제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통 유선복을 입고 필암서원을 탐방하는 ‘세계유산 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선비들의 삶과 학문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실문, 하마석, 은행나무, 확연루 등 서원의 주요 공간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둘러본다.

우동사 복심과 청절당에서는 지필연묵 체험(사진), 서책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선비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껴본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선 엠비엔(MBN) ‘조선 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국악밴드 ‘올라’가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예술적인 무대를 선보인



다. 공연 이후에는 역사 해설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내관(송용진)’이 ‘조선시대 왕세자의 일상과 스승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 교육문화의 이면을 흥미롭게 조명한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에는 활쏘기, 묵죽도 인쇄, 선비백일장, 선비의 찻자리, ‘एको백’ 만들기, ‘캐릭터 배지’ 제작, 전통사진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비문화 체험이 기다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축제에서 장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한껏 향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가치 제고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김태기 기자

여수시, 종량제 봉투 디자인 전면 개편

글자 중심→그림문자로 변경

배출 시간·무게 제한 명시도

여수시는 12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글자 중심의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그림문자(픽토그램)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시간을 추가했으며, 환경미화원 등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무게 제한도 명시했다.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인 2025여수세계섬박람회 엠블럼을 표기해 홍보 효과를 더했다.



새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는 6월 중순부터 제작될 예정이며, 기존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하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림을 활용한 직관적인 정보 전달로 시민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도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